지역개발연구 제49권 제1호, 2017년 6월, pp.63-86

울릉군 노동시장구조의 특징

남 병 탁*

본 논문은 울릉군 노동시장구조의 특징을 정리하였다. 울릉군은 타 시군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단일노동시장을 형성하고 있다. 울릉군 인구는 1만여 명으로 감소 추세이며 취업자도 전국 평균과 달리 감소하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8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울릉군은 경제규모가 매우 작고 성장률이 미약하다. 지역내 총생산에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군내 모든 사업체가 중소기업이며 숙박 및 음식점업이 사업체와 종사자가 가장 많다. 직종별로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크게 낮고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전국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임금근로자의 비중과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낮다. 이는 울릉군에 좋은 일자리가 적고 미숙련 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이 낮음을 시사한다.

주제어 : 울릉군, 노동시장구조, 노동시장권, 고용률

Ⅰ. 서 론

지역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역별로 인구구조와 산업구조가 다름에 따라 노동력의 수급 양상이 상이하게 전개되는 지역별 노동시장의 존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일찍이 한국노동연구원이 주도하여 지역노동시장연구를 수행하였는데 남기곤(1998)이 대전충청지역의 노동력 수급구조와 근로조건을 분석하였고, 임정덕(1998)은 부산경남지역의 노동시장구조를, 홍성우·이건철(1998)은 광주전남지역의 노동시장을, 류기철(1998)은 대구경북지역노동시장을 분석하였다. 박영구(2002)는 부산지역 노동시장의 특징과 지역정책에 대해 연구하였다. 특히 대구경북지역노동시장의 구조에 관한 초기 연구로는 류기철(1998)과 이효수·백승대·이재훈(1999), 이효수 외(1999) 등이 있다. 이후 이효수·남병탁(2006)은 대구경북지역 노동시장구조에 관한 연구에서 대구경북지역을 하나의 노동시장권으로 분석하였다. 박우식.엄창옥.남병탁(2010)은 대구

* 경일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 Tel: 053-600-5101 E-mail: ptnahm@kiu.ac.kr

경북지역 인재 유출입 수지를 분석하였고, 김용현(2012)은 대구경북지역 청년 역외유출 원인과 해소방안을 연구하였으며, 이재훈(2012)은 대구경북지역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 진단과 해소방안에 대해 연구하였다. 권우현 외(2013)는 이들 선행연구를 검토하고 대구경북지역 노동시장 구조를 분석하였고 분석단위를 시도 및 필요한 경우 시군구별로 세분화도 시도하였다. 이처럼 지역고용 및 지역노동시장에 관한 연구가 축적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광역시도 단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대구경북지역 고용노동시장에 관한 분석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광역시도단위의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이유는 단일노동시장권이라는 전제와 통계자료 확보의 용이성 등을 들 수 있다.

한편, 노동시장권에 관한 개념 연구에서는 통근권(Travel-To-Work Areas: TTWAs) 접근이 기능적 관점에서 지역노동시장을 정의하는 대표적인 방법이다. 이 접근법에 따르면 어떤 지역노동시장은 노동공급 측면에서의 구직활동과 노동수요 측면에서의 채용활동 대부분이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공간적 영역으로 정의된다(윤윤규 외, 2012).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광역시도를 단일 노동시장권으로 전제하는 것은 몇 가지 의문을 수반한다. 우선 광역시의 경우는 출퇴근가능한 동일 노동시장권으로 볼 수 있지만 인접 시군의 접근가능성으로 인해 단일노동시장으로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광역도의 경우 공간적 범위가 넓어 출퇴근이 어려워 단일노동시장권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광역권에서 행정구역과 동일한 노동시장을 찾기는 현실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인접 지자체와의 연결성을 감안하면 행정구역단위로 단일노동시장권을 찾기는 쉽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현실에서 울릉군은 매우 독특한 노동시장환경을 제공한다. 울릉군은 도서지역으로 육지와 분절되어 타 지역 통근 취업자가 없으며 사실상 독자적 생활권과 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다.[1)]

한편, 2010년 민선 5기부터 시작된 일자리목표공시제가 시행된 이후 각 기초지자체별로 고용률 제고와 일자리창출을 위한 행정당국의 노력이 가시적으로 전개되었다. 자치단체에서는 고용노동부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일자리공시제도 시행에 참여하였다. 아울러 지역별 고용조사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반기별 고용동향이 발표되고 있다. 이제는 기초지자체에 관한 고용노동시장 및 일자리대책관련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정

1) 이러한 사실은 지역별고용조사에서 타 지역 통근취업자수가 0으로 모든 취업자가 울릉군내에서 근무하고 있다는 통계수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에도 불구하고 기초자치단체의 노동시장 구조에 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든 실정이다. 특히 울릉군 노동시장에 관해서는 연구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단일노동시장권을 형성하고 있는 드문 사례로서 경상북도 울릉군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는 울릉군 노동시장에 관한 최초의 연구로서 향후 동 분야의 연구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본 서론에 이어 제2장에서는 울릉군의 인구구조와 노동력특성별 노동공급구조를 파악하고, 제3장에서는 울릉군의 산업구조와 노동시장의 수요구조를 파악한다. 제4장에서는 연구를 요약하며 결론을 맺는다.

Ⅱ. 노동공급구조

1. 인구구조

지역 노동시장의 공급은 기본적으로 지역 인구구조의 변화에 달려있다. 울릉군의 총인구는 2016년 말 기준 10,001명으로 경북의 0.4%를 차지한다. 성별로는 남자비중이 54.3%로 전국이나 경북의 남성비중보다 높은 편이다. 울릉군의 2016년 총인구는 2013년 10,524명에서 523명(5.0%) 감소하였다. 이러한 인구감소는 출생사망으로 인한 감소가 69명인데 비해 인구이동으로 인한 감소가 454명으로 86.8%를 차지하였다. 인구이동에 의한 감소에서도 경북도내 타 시군으로의 순이동 185명보다 타 시도로의 순이동이 269명으로 더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1〉 울릉군 성별 인구 현황 (2016말 기준)

구 분	총인구수(명)	남자인구수(명)	남성비중(%)	여자인구수(명)	여성비중(%)
전국	51,696,216	25,827,594	50.0	25,868,622	50.0
경상북도	2,700,398	1,356,868	50.3	1,343,530	49.7
울릉군	10,001	5,430	54.3	4,571	45.7

자료: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표 2〉 울릉군 인구증감 추이

구 분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인구증감	697	-110	43	157	376	41	-69	-149	-260	-111	-152
자연증감	-27	-3	-3	-7	123	-19	-1	-7	-29	-18	-22
순이동 (명)	724	-107	46	164	253	60	-68	-142	-231	-93	-130
경북 내 순이동	272	-58	-19	4	38	1	-64	-108	-98	-42	-45
시도 간 순이동	452	-49	65	160	215	59	-4	-34	-133	-51	-85

자료: KOSIS 인구이동통계

울릉군의 인구구조 변화를 연령계층별로 보면 유년인구(14세 이하)와 청년층 인구(15-29세)뿐만 아니라 50세 미만 인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있고, 반면 50세 이상 특히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경상북도를 비롯한 전국적으로 동일한 현상으로 저출산과 평균수명연장에 기인한 것으로 울릉군도 예외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지난 4년 사이(2013년-2016년) 40세 미만 연령 인구는 35.3%에서 32.5%로 451명이 감소하였다. 반면 60세 이상 고령인구는 같은 기간 동안 27.3%에서 30.5%로 182명 증가하여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처럼 40세 미만 젊은 연령층의 인구감소가 급격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러한 추세가 계속되면 노동공급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표 3〉 연령별 인구구조 변화

(단위: 명, %)

	전체	15세 미만	15세~29세	30세~39세	40세~49세	50~59세	60세이상
울릉 2013	10,524	884	1,563	1,267	1,693	2,249	2,868
비율	100.0	8.4	14.9	12.0	16.1	21.4	27.3
2014	10,264	833	1,504	1,208	1,629	2,200	2,890
비율	100.0	8.1	14.7	11.8	15.9	21.4	28.2
2015	10,153	813	1,507	1,134	1,559	2,167	2,973
비율	100.0	8.0	14.8	11.2	15.4	21.3	29.3
2016	10,001	735	1,450	1,068	1,531	2,167	3,050
비율	100.0	7.3	14.5	10.7	15.3	21.7	30.5

자료: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이제 청년층 인구(15-29세)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자. 2016년 말 기준 울릉군 청년 인구는 1,450명으로 경상북도 청년층의 0.3%에 해당한다. 청년 남성의 비율이 57.9%로 여성보다 15.8%p나 높은데 전국 평균보다 울릉군에서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났다. 청년 인구의 5세 단위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4세 인구가 36.7%로 가장 많고 25～29세 35.5%, 15～19세 27.8%의 순으로 나타났다.

〈표 4〉 성별, 연령별 청년 인구 현황 (2016말 기준)

구 분		청년층 인구					
		계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15~19세	20~24세	25~29세
인원 (명)	전국	9,889,487	5,192,237	4,697,250	3,131,059	3,541,061	3,217,367
	경상북도	462,208	253,313	208,895	153,905	167,180	141,123
	울릉군	1,450	839	611	403	532	515
구성비 (%)	전국	100.0	52.5	47.5	31.7	35.8	32.5
	경상북도	100.0	54.8	45.2	33.3	36.2	30.5
	울릉군	100.0	57.9	42.1	27.8	36.7	35.5

자료: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한편, 고령층 인구(60세이상)의 성별, 연령별 현황을 살펴보면 2016년 말 기준 울릉군 고령층 인구는 3,050명으로 경상북도 고령층의 0.4%에 해당한다. 고령 여성의 비중이 53.1%로 남성보다 높으나 경북을 포함한 전국의 고령 여성 비중보다는 낮게 나타났다.

〈표 5〉 60세이상 고령 인구의 성별, 연령별 현황 (2016말 기준)

구 분		고령 인구					
		계	성별		연령대별		
			남성	여성	60～64세	65～69세	70세 이상
인원 (명)	전국	10,134,728	4,497,366	5,637,362	3,139,076	2,237,345	4,758,307
	경상북도	683,618	295,285	388,333	191,201	145,050	347,367
	울릉군	3,050	1,430	1,620	896	675	1,479
구성비 (%)	전국	100.0	44.4	55.6	31.0	22.1	47.0
	경상북도	100.0	43.2	56.8	28.0	21.2	50.8
	울릉군	100.0	46.9	53.1	29.4	22.1	48.5

자료: KOSIS 주민등록인구통계

2. 경제활동인구

지역 노동시장의 공급구조는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다. 울릉군의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에 대한 추이가 <표 6>에 나타나 있는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적 현상들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울릉군의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취업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이는 전국과 경북의 증가 추세와 상반되며, 울릉군 전체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고 있다. 둘째,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국이나 경북보다 훨씬 높은 편이다. 2016년의 경우를 보면 경제활동참가율은 울릉군이 79.8%인데 경북은 64.1%, 전국은 62.8%이었다. 고용률도 울릉군은 79.5%인데 비하여 경북은 62.1%, 전국은 60.4%이었다. 이는 기본적으로 울릉군에서 농림어업의 비중이 높은데 기인한다.[2] 셋째, 15-64세 기준 고용률은 정부가 목표로 하는 70%를 이미 달성하였을 뿐만 아니라 80%대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있다.

〈표 6〉 경제활동인구 총괄

(단위: 천명, %)

	연도	15세 이상 인구	경제활동 인구	취업자	실업자	경제활동 참가율	비경제 활동인구	고용률	15-64세 고용률
전국	2013	42,096	25,873	25,066	807	61.5	16,223	59.5	64.4
	2014	42,513	26,536	25,599	937	62.4	15,977	60.2	65.3
	2015	43,017	26,913	25,936	976	62.6	16,105	60.3	65.7
	2016	43,416	27,247	26,253	1,012	62.8	16,169	60.4	66.1
경북	2013	2,246	1,430	1,386	45	63.7	816	61.7	66.3
	2014	2,263	1,463	1,420	43	64.7	800	62.8	67.9
	2015	2,279	1,457	1,412	45	63.9	822	62.0	67.5
	2016	2,287	1,466	1,420	46	64.1	821	62.1	67.6
울릉	2013	8.1	6.5	6.4	0	79.5	1.7	79.3	82.0
	2014	7.9	6.3	6.3	0	80.4	1.5	79.8	81.3
	2015	7.8	6.4	6.3	0.1	81.9	1.4	81.2	82.1
	2016	7.7	6.1	6.1	0.0	79.8	1.5	79.5	81.9

자료: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2) 울릉군 일자리담당자의 말에 따르면 울릉군에는 봄철 산나물 채취와 여름가을철 오징어 건어 등으로 소득을 벌 기회가 많아 공공근로 참여 신청이 미달한 사례도 있었다고 한다.

3. 노동력 특성별 고용구조

<표 7>은 전국과 경북, 울릉군의 취업자, 실업자의 성별 구성비를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르면 성별 고용구조의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여성 취업자가 감소하고 있으며 남성 취업자의 비중이 전국적으로는 줄어드는 추세인데 울릉군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울릉군의 남성 인구 비중이 타 지역에 비해 높은 것에 기인한다.[3] 또한 실업률이 매우 낮아 완전고용상태에 있다. 특히 여성의 경우 실업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민 대다수가 소득을 벌기 위해 일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만큼 일거리는 많되 소득이 높지 않을 가능성을 제시한다.[4]

〈표 7〉 성별 고용구조

(단위: 천명, %)

	연도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실업률	
		남(구성비)	여	남(구성비)	여	남(구성비)	여	남	여
전국	2013	15,071(58.2)	10,802	14,573(58.1)	10,494	498(61.7)	309	3.3	2.9
	2014	15,387(58.0)	11,149	14,839(58.0)	10,761	548(58.5)	389	3.6	3.5
	2015	15,543(57.8)	11,370	14,971(57.7)	10,965	572(58.6)	405	3.7	3.6
	2016	15,718(57.7)	11,529	15,122(57.6)	11,114	596(58.9)	416	3.8	3.6
경북	2013	825(57.7)	606	798(57.6)	588	27(60.0)	18	3.3	2.9
	2014	848(58.0)	615	822(57.9)	598	25(58.1)	18	3.0	2.8
	2015	852(58.5)	605	824(58.4)	588	27(60.0)	17	3.2	2.8
	2016	857(58.5)	609	830(58.5)	590	27(58.7)	20	3.1	3.2
울릉	2013	3.6(55.4)	2.9	3.6(56.3)	2.9	0.0(0.0)	0.0	0	0
	2014	3.6(57.1)	2.8	3.5(55.6)	2.7	0.1(50.0)	0.1	2.8	0
	2015	3.7(57.8)	2.7	3.6(57.1)	2.7	0.1(100.0)	0.0	2.7	0
	2016	3.6(59.0)	2.5	3.6(59.0)	2.5	0.0(0.0)	0.0	0	0

자료: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3) <표 1>에서 울릉군은 2016년 남자 인구비율이 54.3%로 전국 50.0%에 비해 월등히 높은 편이다.

4) <표 12>에서 울릉군의 1인당 생산액이 전국과 경북의 1인당 생산액을 크게 하회하고 있다.

연령별 취업자 분포가 <표 8>에 나타나 있다. 여기서도 몇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첫째, 울릉군의 고용률이 80%에 근접하고 있는데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도 2016년 63.7%로 전국이나 경북도에 비해 약 20%p 정도를 상회하고 있다. 둘째,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도 고용률이 75% 내외로 등락하고 있어 전국보다 40%p, 경북보다 30%p나 상회하고 있다. 2016년 취업자 중 65세 이상 비중이 24.6%로 경북 15.2%, 전국평균 8.1%에 비하여 크게 높은 편으로 노동력의 고령화가 심각한 현상이다.

〈표 8〉 연령별 고용구조

(단위: 천명, %)

	연도	취업자 총수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국	2013	25,066	3,793	39.7	12,379	75.9	6,996	69.3	1,893	30.9
	2014	25,599	3,870	40.7	12,396	76.6	7,331	70.3	2,003	31.3
	2015	25,936	3,938	41.5	12,344	76.8	7,617	70.6	2,038	30.6
	2016	26,235	3,985	42.3	12,280	77.0	7,839	70.5	2,130	30.7
경북	2013	1,386	170	37.0	584	77.0	430	75.7	203	43.9
	2014	1,420	193	42.4	577	77.1	443	76.0	207	43.4
	2015	1,412	189	41.8	570	77.1	449	75.1	206	41.9
	2016	1,420	181	40.7	569	78.4	453	74.0	216	42.7
울릉	2013	6.4	0.6	56.8	2.2	88.5	2.3	86.1	1.4	70.8
	2014	6.3	0.6	59.3	2.0	87.8	2.2	83.8	1.4	75.2
	2015	6.3	0.5	57.1	2.0	88.6	2.2	85.9	1.6	78.3
	2016	6.1	0.6	63.7	1.9	89.7	2.1	82.1	1.5	72.9

자료: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표 9>과 <표 10>에는 울릉군 남자와 여자의 연령별 고용구조가 나타나 있다. 15-29세 청년층에서 남자 취업자 수가 여자의 2배에 이르고 고용률도 2016년 76.7%로 여자 46.4%보다 30%포인트 상회할 뿐만 아니라 전국평균이나 경북평균의 2배에 근접하고 있다. 이는 울릉군에 대학교가 없고 고등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만 1개교 있음에 기인한다. 한편, 65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여성 고용률이 70%를 상회하고 2015년에는 76.6%를 기록하는 등 남성 고용률에 다소 낮은 편이나 전국 평균이나 경북에 비해서는 50%p, 35%p 정도 높은 편이다.

〈표 9〉 남자 연령별 고용구조

(단위: 천명, %)

	연도	취업자 총수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국	2013	14,573	1,813	38.1	7,535	91.1	4,155	83.0	1,069	41.9
	2014	14,839	1,846	38.9	7,533	91.9	4,334	83.7	1,126	42.1
	2015	14,971	1,885	39.8	7,467	91.6	4,468	83.2	1,151	41.1
	2016	15,122	1,918	40.7	7,404	91.4	4,599	83.0	1,202	41.1
경북	2013	806	89	37.0	360	92.1	247	86.6	110	59.2
	2014	819	92	38.6	355	91.7	257	87.6	115	59.3
	2015	808	86	36.7	347	90.4	261	86.6	114	57.1
	2016	818	87	37.7	346	91.3	267	86.1	118	56.9
울릉	2013	3.6	0.3	56.3	1.4	95.5	1.3	93.7	0.6	69.7
	2014	3.5	0.3	64.3	1.3	96.3	1.3	91.0	0.6	73.2
	2015	3.6	0.3	62.5	1.3	97.8	1.3	93.9	0.7	80.7
	2016	3.6	0.4	76.7	1.3	97.5	1.3	90.2	0.7	74.7

자료: KOSIS 연도별 지역별고용조사에서 필자 계산

〈표 10〉 여자 연령별 고용구조

(단위: 천명, %)

	연도	취업자 총수	15-29세		30-49세		50-64세		65세 이상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취업자	고용률
전국	2013	10,494	1,980	41.3	4,844	60.2	2,841	55.8	829	23.1
	2014	10,761	2,023	42.5	4,863	60.9	2,996	57.1	877	23.5
	2015	10,965	2,053	43.2	4,878	61.6	3,149	58.1	887	22.9
	2016	11,114	2,067	43.8	4,877	62.3	3,241	58.1	929	23.2
경북	2013	586	72	33.0	218	60.0	186	65.0	109	39.0
	2014	597	76	34.9	213	59.5	192	65.5	116	40.2
	2015	596	77	36.0	212	60.1	195	64.9	113	38.3
	2016	600	74	34.8	208	60.5	201	65.7	117	38.6
울릉	2013	2.9	0.3	57.4	0.8	78.8	1.0	77.6	0.8	71.6
	2014	2.7	0.2	53.3	0.7	75.9	0.9	75.6	0.8	76.7
	2015	2.7	0.2	50.2	0.7	75.6	0.9	76.3	0.9	76.6
	2016	2.5	0.2	46.4	0.7	77.8	0.9	72.4	0.8	71.5

자료: KOSIS 연도별 지역별고용조사에서 필자 계산

4. 비경제활동인구

<표 11>은 울릉군의 성별,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의 변동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성별로 보면 울릉군을 포함 전국적으로 여성의 비중이 남성의 약 2배에 이르고, 연령별로 보면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의 비중이 울릉군이 경북과 전국보다 낮다. 반면에 50세 이상 장년층과 고령층의 비중에서는 울릉군이 경북과 전국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청년층과 50세 미만의 중년층 비중이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동일한 추세를 보이고 있다.

〈표 11〉 성별, 연령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남자	여자	15~29세	30~49세	50세 이상
전국	2013	16,223	5,512(34.0)	10,710(66.0)	5,424(33.4)	3,621(22.3)	7,178(44.2)
	2014	15,977	5,409(33.9)	10,568(66.1)	5,248(32.8)	3,449(21.6)	7,280(45.6)
	2015	16,105	5,519(34.3)	10,586(65.7)	5,152(32.0)	3,393(21.1)	7,561(46.9)
	2016	16,169	5,564(34.4)	10,604(65.6)	5,008(31.0)	3,330(20.6)	7,831(48.4)
경북	2013	816	274(33.6)	541(66.3)	269(33.0)	159(19.5)	388(47.5)
	2014	800	261(32.6)	538(67.3)	246(30.8)	154(19.3)	399(49.9)
	2015	822	267(32.5)	556(67.6)	245(29.8)	154(18.7)	425(51.7)
	2016	821	268(32.6)	553(67.4)	242(29.5)	142(17.3)	437(53.2)
울릉	2013	1.7	0.6(35.3)	1.0(58.8)	0.5(29.4)	0.3(17.6)	0.9(52.9)
	2014	1.5	0.6(40.0)	1.0(66.7)	0.4(26.7)	0.3(20.0)	0.9(60.0)
	2015	1.4	0.4(28.6)	1.0(71.4)	0.4(28.6)	0.2(14.3)	0.8(57.1)
	2016	1.5	0.5(33.3)	1.0(66.7)	0.3(20.0)	0.2(13.3)	1.0(66.7)

자료: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표 12>는 울릉군의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의 변동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육아가사의 비중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는데 울릉군도 예외가 아니다. 또한, 재학진학준비로 인한 비경제활동인구의 비중은 울릉군이 경북과 전국에 비해 현저히 낮게 나타났는데, 이는 울릉군에 대학이 없는 현실이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표 12〉 활동상태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육아가사	재학진학준비	연로	기타
전국	2013	16,223	7,442(45.9)	4,456(27.5)	1,842(11.4)	2,483(15.3)
	2014	15,977	7,272(45.5)	4,357(27.3)	1,935(12.1)	2,413(15.1)
	2015	16,105	7,235(44.9)	4,217(26.2)	2,044(12.7)	2,609(16.2)
	2016	16,169	7,204(44.6)	4,150(25.7)	2,162(13.4)	2,653(16.4)
경북	2013	834	392(47.0)	220(26.4)	93(11.2)	129(15.5)
	2014	828	402(48.6)	210(25.4)	83(10.0)	133(16.1)
	2015	843	377(44.7)	208(24.7)	92(10.9)	166(19.7)
	2016	843	375(44.5)	199(23.6)	95(11.3)	174(20.6)
울릉	2013	1.7	0.8(47.1)	0.3(17.6)	0.3(17.6)	0.3(17.6)
	2014	1.5	0.8(53.3)	0.3(20.0)	0.2(13.3)	0.3(20.0)
	2015	1.4	0.7(50.0)	0.2(14.3)	0.2(14.3)	0.3(21.4)
	2016	1.5	0.7(46.7)	0.2(13.3)	0.2(13.3)	0.4(26.7)

자료: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표 13〉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

(단위: 천명, %)

		비경제활동인구	중졸이하	고졸	대졸이상
전국	2013	16,223	7,240(44.6)	5,904(36.4)	3,078(19.0)
	2014	15,977	7,034(44.0)	5,748(36.0)	3,195(20.0)
	2015	16,105	7,028(43.6)	5,732(35.6)	3,346(20.8)
	2016	16,169	6,955(43.0)	5,766(35.7)	3,448(21.3)
경북	2013	816	446(54.7)	255(31.3)	115(14.1)
	2014	800	433(54.1)	252(31.5)	115(14.4)
	2015	822	443(53.9)	256(31.1)	124(15.1)
	2016	821	438(53.3)	255(31.1)	129(15.7)
울릉	2013	1.7	1.0(58.8)	0.5(29.4)	0.2(11.8)
	2014	1.5	1.0(66.7)	0.4(26.7)	0.2(13.3)
	2015	1.4	0.8(57.1)	0.4(28.6)	0.2(14.3)
	2016	1.5	0.9(60.0)	0.4(26.7)	0.2(13.3)

자료: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표 13>은 울릉군의 교육정도별 비경제활동인구의 변동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비경제활동인구를 교육정도별로 보면 전국적으로 중졸 이하가 가장 많고 고졸, 대졸 이상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울릉군도 예외가 아니다. 비경제활동인구에서 중졸이하의 비중이 울릉군에서 경북과 전국보다 높게 나타났다. 한편, 울릉군에 대학이 없음에도 대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가 200여명이 상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은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Ⅲ. 노동수요구조

1. 지역내총생산

지역 노동시장의 수요는 기본적으로 지역 산업구조와 경기의 변화에 달려있다. <표 14>는 울릉군 지역내총생산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여기서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울릉군의 GRDP는 2010년 212십억원에서 2013년 214십억원으로 0.9% 증가하였다. 같은 기간 동안 전국의 총생산이 13.1% 증가하고 경북의 GRDP가 10.3% 증가한 데 비하면 울릉군의 경제규모가 너무 정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경북지역의 명목 GRDP에서 울릉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0년 0.3%에서 2013년 0.2%로 감소하였다. 셋째, 울릉군의 1인당 GRDP는 2010년 1,978달러에서 2013년 2,030달러로 1.1% 증가하였다.

〈표 14〉 울릉군 지역내총생산 연도별 추이

구 분		2010	2011	2012	2013	증가율 ('13/'10)
전국	GDP(십억원)	1,265,146	1,330,888	1,377,041	1,430,255	13.1
	1인당 생산액(만원)	2,561	2,674	2,754	2,848	11.2
경북	GRDP(십억원)	80,839	82,276	85,401	89,132	10.3
	1인당 생산액(만원)	3,076	3,122	3,234	3,375	9.7
울릉군	GRDP(십억원)	212	225	256	214	0.9
	1인당 생산액(만원)*	1,978	2,098	2,397	2,030	1.1

자료: KOSIS

* 1인당 생산액(만원)은 주민등록인구 기준으로 계산

같은 기간 전국의 1인당 생산액이 11.2% 증가하고 경북은 9.7% 증가한 것과 크게 대조된다. 여기서 울릉군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이에 울릉군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장산업 육성 등 정책적 노력을 강구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표 15〉 울릉군 2010년 기준년 가격 경제활동별 지역내총생산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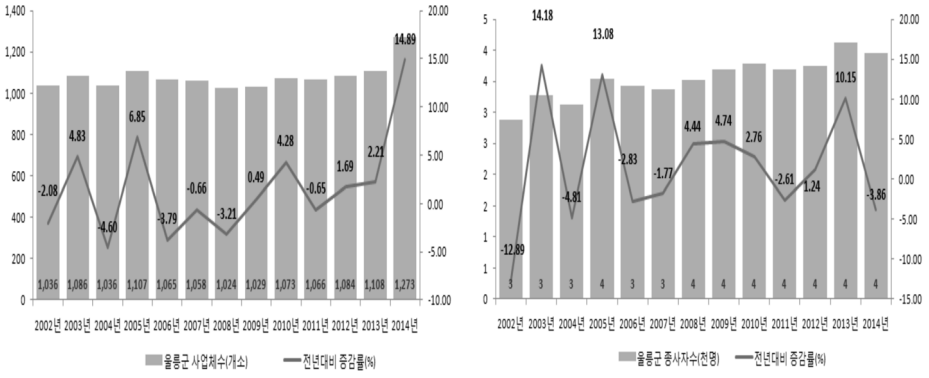
(단위: 백만원, %)	2010	2011	2012	2013	2013년 구성비	'13/'10 증가율
지역내총생산 (시장가격)	211,695	225,395	255,833	213,651	100.0	0.9
농림어업	23,580	23,605	23,972	22,305	10.4	-5.4
광업	0	0	0	0	0.0	0.0
제조업	6,207	6,822	6,564	5,885	2.8	-5.2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1,233	1,249	85	1,020	0.5	-17.3
건설업	28,527	33,032	48,256	28,887	13.5	1.3
도매 및 소매업	5,242	6,041	5,722	5,759	2.7	9.9
운수업	13,711	12,084	11,356	9,169	4.3	-33.1
숙박 및 음식점업	16,204	18,658	20,694	8,196	3.8	-49.4
출판영상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4,562	4,700	4,368	3,791	1.8	-16.9
금융 및 보험업	6,163	7,006	6,216	5,982	2.8	-2.9
부동산업 및 임대업	6,685	6,506	6,745	7,416	3.5	10.9
사업서비스업	1,335	1,578	2,599	2,507	1.2	87.8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65,927	69,351	80,372	80,669	37.8	22.4
교육서비스업	11,948	12,407	13,139	13,329	6.2	11.6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3,777	3,652	3,636	4,190	2.0	10.9
문화 및 기타서비스업	5,193	4,878	5,225	6,204	2.9	19.5
순생산물세	11,401	13,826	16,884	8,342	3.9	-26.8

자료: 통계청 시군구단위 지역내총생산

<표 15>는 울릉군의 2010년 기준년 가격 경제활동별 지역내 총생산 추이를 보여주고 있다. 울릉군의 2013년 GRDP는 2,137억원으로 산업별 비중을 보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37.8%로 가장 크고, 건설업 13.5%, 농림어업 10.4%, 교육서비스업 6.2%의 순으로 나타났다. 2010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업종은 사업서비스업으로 87.8% 증가하였고[5] 이어서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22.4%, 문화및기타서비스업 19.5%, 교육 서비스업 11.6%, 부동산업및임대업과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0.9%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2010년대비 생산이 감소한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으로 49.4%나 감소하였고 이어서 운수업 -33.1%, 전기가스증기및수도사업 -17.3%, 출판영상방송통신및정보서비스업 -16.9%의 순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2. 산업구조

<그림 1>은 울릉군 사업체수와 종사자수의 연도별 추이를 보여준다. 울릉군의 사업체수는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 2011년 이후 증가하고 있는데 2014년 말 기준 1,273개소로 전년 대비 14.9% 증가하였다. 종사자수는 2007년 이후 증가세를 보이다가 2011년 일시적으로 감소한 뒤 2012년부터 다시 증가하였으나 2014년에 3,963명으로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다.



자료: 울릉군(2017), 2017년도 울릉군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그림 1〉 울릉군 사업체수 및 종사자주 추이

5) 2010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울릉군의 사업서비스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표 16>과 <표 17>은 2014년 울릉군의 종사자규모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현황을 보여준다. 2014년 말 기준 울릉군의 사업체는 1,273개로 경북의 0.6%를 차지하고 규모별 사업체 수를 보면 300인 이상 사업체가 없으며 100%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 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체수 비중이 89.3%로 대부분을 차지하며 전국 81.3%, 경북 83.9%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울릉군의 종사자수는 3,963명으로 경북의 0.4%를 차지하고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53.1%에 달하여 경북 30.2%, 전국 28.1%를 크게 상회하였다.

〈표 16〉 규모별 사업체수 (2014말 기준)

구 분		사업체수					
		전체	5인 미만	5~19인	2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사업체수 (개소)	전국	3,812,820	3,099,823	576,177	119,712	13,652	3,456
	경상북도	213,813	179,370	26,968	6,689	615	171
	울릉군	1,273	1,137	117	17	2	0
구성비 (%)	전국	100.0	81.3	15.1	3.1	0.4	0.1
	경상북도	100.0	83.9	12.6	3.1	0.3	0.1
	울릉군	100.0	89.3	9.2	1.3	0.2	0.0

자료: KOSIS 전국사업체조사, 대구고용노동청(2016)

〈표 17〉 규모별 종사자수 (2014말 기준)

구 분		종사자수					
		전체	5인 미만	5~19인	20~99인	100~299인	300인 이상
종사자수 (명)	전국	19,899,786	5,586,609	4,777,441	4,690,649	2,129,727	2,715,360
	경상북도	1,028,921	310,723	228,151	258,723	98,296	133,028
	울릉군	3,963	2,105	1,057	422	379	0
구성비 (%)	전국	100.0	28.1	24.0	23.6	10.7	13.6
	경상북도	100.0	30.2	22.2	25.1	9.6	12.9
	울릉군	100.0	53.1	26.7	10.6	9.6	0.0

자료: KOSIS 전국사업체조사, 대구고용노동청(2016)

<표 18>과 <표 19>는 2014년 울릉군의 산업별 사업체수와 종사자수 현황을 보여준다. 2014년 말 기준 울릉군의 사업체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431개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 건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 사업체수 비중은 전국과 경북도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울릉군의 종사자수는 숙박 및 음식점업이 917명으로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건설업 분야의 종사자수 비중은 전국과 경북도를 상회하였다.

〈표 18〉 산업별 사업체수 (2014말 기준)

구 분		사업체수					
		전체	숙박 및 음식점업	도매 및 소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제조업	운수업
사업체수 (개소)	전국	3,812,820	703,364	997,120	399,723	397,171	378,884
	경상북도	213,813	46,459	52,963	24,850	25,120	17,115
	울릉군	1,273	431	265	127	95	86
구성비 (%)	전국	100.0	18.4	26.2	10.5	10.4	9.9
	경상북도	100.0	21.7	24.8	11.6	11.7	8.0
	울릉군	100.0	33.9	20.8	10.0	7.5	6.8

구 분		사업체수					
		건설업	사업시설 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교육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기타
사업체수 (개소)	전국	128,215	50,785	12,096	175,389	103,635	466,438
	경상북도	8,862	2,288	1,248	9,443	5,539	19,926
	울릉군	81	29	27	26	23	83
구성비 (%)	전국	3.4	1.3	0.3	4.6	2.7	12.2
	경상북도	4.1	1.1	0.6	4.4	2.6	9.3
	울릉군	6.4	2.3	2.1	2.0	1.8	6.5

자료: KOSIS 전국사업체조사, 대구고용노동청(2016)

〈표 19〉 산업별 종사자수 (2014말 기준)

구 분		종사자수					
		전체	숙박 및 음식점업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도매 및 소매업	건설업	제조업
종사자수 (명)	전국	19,899,786	2,071,581	648,579	2,998,923	1,098,535	3,957,394
	경상북도	1,028,921	108,952	40,490	124,983	55,993	321,114
	울릉군	3,963	917	576	515	393	342
구성비 (%)	전국	100.0	10.4	3.3	15.1	5.5	19.9
	경상북도	100.0	10.6	3.9	12.1	5.4	31.2
	울릉군	100.0	23.1	14.5	13.0	9.9	8.6

구 분		종사자수					
		교육 서비스업	운수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기타
종사자수 (명)	전국	1,509,046	1,047,788	1,413,443	949,932	976,789	3,227,776
	경상북도	78,592	41,542	72,013	52,904	28,306	104,032
	울릉군	205	194	190	178	126	327
구성비 (%)	전국	7.6	5.3	7.1	4.8	4.9	16.2
	경상북도	7.6	4.0	7.0	5.1	2.8	10.1
	울릉군	5.2	4.9	4.8	4.5	3.2	8.3

자료: KOSIS 전국사업체조사, 대구고용노동청(2016)

3. 고용구조

<표 20>은 울릉군의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동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취업자수가 감소추세인 가운데 2016년 울릉군의 산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농림어업이 17.7%, 광공업이 3.2%, 도소매음식숙박업이 19.4%,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이 41.9%이다. 울릉도의 고용구조에서 특징적인 것은 우선 광공업 비중이 전국 평균과 경북도에 비해 대단히 낮다.[6] 한편 농림어업의 비중은

6) 2010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울릉군의 제조업 사업체는 8개이고 출하액은 215억원으로 나타났다. 제조업은 호박엿공장, 제빙냉동공장, 벽돌공장, 두부공장 등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영세하다.

경북도와는 큰 차이가 나지 않지만 전국 평균에 비해서는 크게 높은 편이다. 또한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 일자리비중이 전국에 비해 약 5%p, 경북에 비해 약 10%p를 상회하고 있다.[7] 산업별 고용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몇 가지 특징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첫째, 울릉군의 광공업 일자리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 이는 전국과 경북에서 광공업 일자리수가 증가하는 추세와 대비된다. 둘째, 울릉군에서는 농림어업의 일자리수가 줄지 않다가 2016년 감소하였는데 전국과 경북에서 농림어업 일자리수와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와는 상이한 양상이다. 셋째, 울릉군의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 일자리 수와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적으로 유사한 추세에 해당한다.

〈표 20〉 산업별 고용구조

(단위: 천명, %)

		취업자 총수	농림어업	광공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숙박	전기운수 통신금융	사업개인 공공서비스 및 기타
전국	2013	25,066	1,520(6.1)	4,200(16.8)	1,754(7.0)	5,630(22.5)	3,059(12.2)	8,903(35.5)
	2014	25,599	1,452(5.7)	4,343(17.0)	1,796(7.0)	5,889(23.0)	3,041(11.9)	9,079(35.5)
	2015	25,936	1,345(5.2)	4,500(17.4)	1,823(7.0)	5,962(23.0)	3,063(11.8)	9,244(35.6)
	2016	26,235	1,286(4.9)	4,500(17.2)	1,845(7.0)	6,006(22.9)	3,084(11.8)	9,514(36.3)
경북	2013	1,386	281(20.3)	263(19.0)	93(6.7)	267(19.3)	104(7.5)	378(27.3)
	2014	1,420	264(18.6)	285(20.1)	85(6.0)	278(19.6)	118(8.3)	390(27.5)
	2015	1,412	238(16.9)	279(19.8)	86(6.1)	278(19.7)	127(9.0)	405(28.7)
	2016	1,420	221(15.6)	281(19.8)	88(6.2)	288(20.3)	114(8.0)	429(30.2)
울릉	2013	6.4	1.1(17.2)	0.5(7.8)	0.5(7.8)	1.3(20.3)	0.7(10.9)	2.4(37.5)
	2014	6.3	1.1(17.5)	0.4(6.3)	0.4(6.3)	1.2(19.0)	0.6(9.5)	2.5(39.7)
	2015	6.3	1.1(17.5)	0.3(4.8)	0.4(6.3)	1.3(20.6)	0.6(9.5)	2.6(41.3)
	2016	6.1	1.0(16.4)	0.2(3.3)	0.5(8.2)	1.3(21.3)	0.6(9.8)	2.6(42.6)

자료: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표 21>은 울릉군의 직업별 고용구조의 변동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동일한 산업에서도 직종에 따라 일자리수의 변동은 상이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직종별 취업구조를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다. 2016년 울릉군의 직업별 취업자 구성비를

7) 2010년 경제총조사에 따르면 울릉군의 사업서비스업은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주6) 참조.

보면 서비스판매종사자가 23%, 단순노무종사자 21.3%, 농림어업숙련종사자, 16.4%, 사무종사자 16.4%, 관리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 11.5%,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의 비중이 12.9%이다. 울릉도의 직업별 고용구조에서 특징적인 것은 우선 관리자전문가및관련종사자가 전국에 비해 크게 낮고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이 전국 평균과 경북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고임금직업이라 할 수 있는 일자리가 상대적으로 적고 저임금 저숙련 일자리가 많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가 경북과 전국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이다. 이는 제조업의 비중이 낮은데 기인한다. 직업별 고용구조의 변화와 관련해서도 특징적인 현상을 발견할 수 있는데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 수와 비중이 감소하여 전국과 경북의 추세와는 상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광공업 비중이 감소한 데 기인 한다.

〈표 21〉 직업별 취업구조

(단위: 천명, %)

		취업자 총수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기계조작 조립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전국	2013	25,066	5,369(21.4)	4,218(16.8)	5,607(22.4)	1,426(5.7)	5,219(20.8)	3,227(12.9)
	2014	25,599	5,520(21.6)	4,311(16.8)	5,804(22.7)	1,363(5.3)	5,308(20.7)	3,295(12.9)
	2015	25,936	5,555(21.4)	4,400(17.0)	5,831(22.5)	1,251(4.8)	5,476(21.1)	3,424(13.2)
	2016	26,235	5,654(21.6)	4,519(17.2)	5,903(22.5)	1,199(4.6)	5,523(21.1)	3,437(13.1)
경북	2013	1,386	185(13.3)	182(13.1)	270(19.5)	267(19.3)	296(21.4)	186(13.4)
	2014	1,420	190(13.4)	191(13.5)	284(20.0)	253(17.8)	327(23.0)	176(12.4)
	2015	1,412	183(13.0)	191(13.5)	279(19.8)	226(16.0)	345(24.4)	188(13.3)
	2016	1,420	185(13.0)	194(13.7)	302(21.3)	210(14.8)	335(23.6)	194(13.7)
울릉	2013	6.4	0.6(9.4)	1.2(18.8)	1.4(21.9)	1.0(15.6)	1.0(15.6)	1.3(20.3)
	2014	6.3	0.7(11.1)	1.0(15.9)	1.3(20.6)	1.0(15.9)	0.8(12.7)	1.3(20.6)
	2015	6.3	0.8(12.7)	1.0(15.9)	1.3(20.6)	1.1(17.5)	0.8(12.7)	1.4(22.2)
	2016	6.1	0.7(11.5)	1.0(16.4)	1.4(23.0)	1.0(16.4)	0.6(9.8)	1.3(21.3)

자료: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표 22>는 울릉군의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의 변동실태를 나타내고 있다. 여기서도 몇 가지 중요한 특성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2016년 울릉군의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임금근로자가 62.3%, 자영업주,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가 37.7%를 차지하고 있다. 울릉군 임금근로자의 비중이 전국 평균보다 낮고 자영업주와 무급가족종사자 등 비임금근로자의 구성비가 경북과 전국 평균보다 높다. 이는 울릉군에 농림어업과 관광업에 종사하는 개인서비스업및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데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둘째, 임금근로자는 다시 상용근로자와 임시일용근로자로 구분된다.[8] 2016년 그 구성비를 보면, 전국의 경우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66.4%이고 경북의 경우 67.4%인데 비하여, 울릉군은 52.6%이다. 이는 그만큼 울릉군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이 경북과 전국 평균에 비해 상당히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상용근로자 수와 비중이 경북을 포함한 전국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울릉군에서는 정체 상태에 있다. 이는 그만큼 전국적으로 노동시장의 고용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는데 울릉군은 이 추세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울릉군의 일자리구조는 전국에 비해 고급인력의 비중이 낮고 미숙련 직업의 비중이 높으며 고용안정성이 낮아 일자리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표 22〉 종사상지위별 고용구조

(단위: 천명, %)

	년도	취업자 총수	임금근로자			비임금근로자
			전체	상용	임시일용	
전국	2013	25,066	18,195	11,713(64.4)	6,482(35.6)	6,872(27.4)
	2014	25,599	18,743	12,156(64.9)	6,587(35.1)	6,857(26.8)
	2015	25,936	19,230	12,588(65.5)	6,642(34.5)	6,706(25.9)
	2016	26,235	19,546	12,974(66.4)	6,573(33.6)	6,689(25.5)
경북	2013	1,386	823	525(63.8)	298(36.2)	562(40.5)
	2014	1,420	857	567(66.2)	290(33.8)	564(39.7)
	2015	1,412	883	591(66.9)	292(33.1)	530(37.5)
	2016	1,420	910	613(67.4)	297(32.6)	510(35.9)
울릉	2013	6.4	3.9	2.0(51.3)	1.9(48.7)	2.5(39.1)
	2014	6.3	3.8	1.9(50.0)	1.9(50.0)	2.4(38.1)
	2015	6.3	3.9	2.1(53.8)	1.8(46.2)	2.4(38.1)
	2016	6.1	3.8	2.0(52.6)	1.7(47.3)	2.3(37.7)

자료: KOSIS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및 지역별고용조사

8) 임금근로자는 고용계약기간이 1년 이상인 상용근로자,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에서 1년 미만인 임시근로자, 그리고 고용계약기간이 1개월 미만인 일용근로자로 구분할 수 있는데 임시일용근로자는 임시근로자와 일용근로자를 합한 개념이다.

Ⅳ. 결 론

이상에서 울릉군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울릉군 노동시장의 특징은 타 시군에서 출퇴근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으로 온전한 단일노동시장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지리적 특성상 육지의 고용센터 등과 업무 연계가 어렵고 군내에도 일자리 전문 인력과 기관이 미비하여 지자체 주도로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지역노동시장 연구에서 독특한 사례를 제공하고 있으며 울릉군 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평가에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독자성을 가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울릉군의 노동시장 구조에 대한 이해는 울릉군의 독자적 일자리대책의 전개과정에서 대단히 중요한 선결요건이라 할 수 있다.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려면 공급구조와 수요구조를 우선 파악할 필요가 있다. 노동시장의 공급구조는 인구와 경제활동인구 중심으로 분석할 수 있고 수요는 기본적으로 지역 산업구조와 경기의 변화에 달려있다.

이하에서는 지금까지 논의한 울릉군 노동시장의 공급구조와 수요구조를 요약정리한다. 울릉군 총인구는 2016년 10,001명으로 순유출로 감소 추세에 있다. 성별 인구구조를 보면 남자비중이 높은데 특히 청년층에서 남성의 비율이 여성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다만 60세 이상 고령층에서는 여성의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연령별 인구변화를 보면 30대의 감소폭이 가장 크고 60세 이상 고령인구의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 울릉군의 생산가능인구와 경제활동인구 그리고 취업자는 인구 감소 추세를 반영하여 전국 평균과 달리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전국 평균이나 경북보다 훨씬 높은 8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실업률이 매우 낮고 완전고용상태에 있다. 특히 65세 이상 고용률이 전국보다 40%p나 상회하고 여성의 경우 실업자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민 대다수가 소득을 벌기 위해 일에 종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그만큼 일거리는 많지만 1인당 생산액이 높지 않은 것과 관련 있을 수 있다.[9] 연령별 고용구조를 보면 15-29세 청년층의 고용률이 전국에 비해 약 20%p 정도를 상회하는 데 이는 울릉군에 대학교가 부재하고 고등학교도 특성화 고등학교만 1개교 있음에 기인한다. 울릉군의 비경제활동인구를 활동상태별로 보면 전국과 마찬가지로 육아가사의 비중이 높고 대학이 없는 현실을 반영하여 재학진학준비로 인한 비중은 낮게 나타났다. 비경제활동인구를 교육정도별로

9) 물론 울릉군 소득이 낮아 정말 고용률이 높은 건지는 추가적인 실증분석 등이 필요하며 이는 추후 연구과제로 남겨둔다.

보면 중졸 이하가 가장 많고 울릉군에 대학이 부재함에도 대졸 이상의 비경제활동인구가 200여명이 상시로 존재하는 특이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울릉군은 노동시장의 수요를 나타내는 경제규모가 작고 성장이 지지부진하다. 경북지역의 명목 GRDP에서 울릉군이 차지하는 비중이 2013년 0.2%에 불과하고, 2010-2013년 기간 전국의 총생산이 13.1% 증가하고 경북의 GRDP가 10.3% 증가했는데 울릉군의 GRDP는 0.9% 증가에 그쳤다. 1인당 GRDP도 전국의 1인당 생산액이 11.2% 증가하고 경북은 9.7% 증가하였는데 울릉군은 1.1% 증가에 불과하였다. 여기서 울릉군민의 소득과 생활수준이 상대적으로 낙후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울릉군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효과적인 정책적 노력이 절실함을 알 수 있다. 2013년 울릉군의 지역내 총생산의 산업별 비중을 보면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이 가장 크고, 2010년 대비 증가율이 가장 큰 업종은 사업서비스업,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순이며 감소 업종은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순으로 나타났다. 2014년 말 기준 울릉군의 규모별 사업체를 보면 100%가 300인 미만 중소기업이고 그 중에서도 5인 미만 사업체수 비중과 5인 미만 사업체 종사자 비중이 전국을 크게 상회하였다. 업종별로는 숙박 및 음식점업 사업체가 가장 많고 숙박 및 음식점업 종사자수도 가장 많다.

2016년 울릉군의 고용구조를 산업별로 보면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서비스업 일자리비중이 크고 일자리 수와 비중도 증가하였다. 광공업 일자리 비중이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이는 전국과 경북에서 광공업 일자리수가 증가하는 추세와 대비된다. 농림어업의 일자리수가 줄지 않고 비중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전국과 경북에서 농림어업 일자리수와 비중이 감소하는 추세와 대비된다. 직업별 고용구조를 보면 상대적으로 고임금직업이라 할 수 있는 관리자전문가 및 관련종사자의 비중이 전국에 비해 크게 낮다. 제조업의 비중이 낮아 기능기계조작조립종사자의 비중도 경북이나 전국 에 비해 크게 낮은 편인 반면, 단순노무종사자의 비중은 전국, 경북을 크게 상회하고 있다. 이는 울릉군의 일자리구조는 전국에 비해 고급인력의 비중이 낮고 미숙련 직업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며 일자리구조가 취약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종사상지위별 취업자 구성비를 보면, 임금근로자의 비중과 상용근로자의 비중이 전국평균보다 낮다. 이는 울릉군에 농림어업과 개인서비스업 및 기타서비스업의 비중이 높은데 기인하며 울릉군 근로자들의 고용안정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상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정책제언을 하면 울릉군이 단일노동시장권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지역고용주체들과 고용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인구유출 방지

및 유입대책, 좋은 일자리창출, 인적자원개발, 지역공동체복원 등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수립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지역 내 생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군민 1인당 소득 향상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고용집중산업과 고용성장산업으로 분류되는 숙박 및 음식점업과 공공행정·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분야에서 좋은 일자리 창출방안을 마련하여 지역민의 고용안정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 전국의 기초지자체가 참여하는 지역일자리목표공시제가 정착단계에 있지만 기초지자체의 노동시장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가 울릉군 고용정책 수립에 활용될 뿐만 아니라 전국의 기초지자체 노동시장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권우현·전인·안성익·노현국, “대구경북지역 노동시장 분석”, 한국고용정보원, 2013.

김용현, “대구경북지역 청년 역외유출 원인과 해소방안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12.

남기곤, “지역노동시장연구(I) -대전충청지역-”, 한국노동연구원, 1998.

남기성·오민홍·홍현균, “새로운 상대집중계수 NOHI 제안”, 『e-고용이슈』, 제2008-6호, 한국고용정보원, 2008, pp.1-10.

대구고용노동청, “대국경북 고용노동여건 분석자료집”, 2016.

류기철, “지역노동시장연구(IV) -대구경북지역-”, 한국노동연구원, 1998.

박우식·엄창옥·남병탁, “대구경북지역 인재 유출입 수지 분석”, 대구경북연구원, 2010.

울릉군, 2017년도 울릉군 일자리대책 세부계획, 2017.

윤윤규·배기준·윤미례·이상호·최효미·김준영·신인철·정준호, “한국의 지역노동시장권 2010 -방법론, 설정, 및 평가-”, 한국노동연구원, 2012.

이재훈, “대구경북지역 인력수급 불일치 현상 진단과 해소방안에 대한 연구”, 대구경북연구원, 2012.

이효수·남병탁, “대구경북지역 노동시장구조의 특징”, 『경제연구』, 제24권 2호, 한국경제통상학회, 2006.

임정덕, “지역노동시장연구(Ⅱ) -부산·경남지역-”, 한국노동연구원, 1998.

홍성우·이건철, “지역노동시장연구(Ⅲ) -광주·전남지역-”, 한국노동연구원, 1998.

<Abstract>

The Characteristics of Ulleung-gun Labor Market Structure

Pyeong-Tak Nahm

Professor, Social Welfare Department, Kyungil University, Korea

This paper documents the characteristics of Ulleung-gun labor market structure. Ulleung forms one labor market that no one in other local administrative districts travels to and from work. The number of population has decreased around 10,000 and those who employed have also decreased over the years on the contrary to national level. Labor market participation rate and employment rate are around 80%, much higher than national level. Ulleung is a very small economy and its growth rate is way behind national rate. Public administration, defence and social security constitutes the biggest part in GRDP. All the businesses are small and medium sized establishments. The numbers of establishments and employees of Restaurant and accommodation industry are the most. The ratios of wage and salary workers and regular employees are low relative to national average. The number of unskilled workers has increased. Employment stability is lower than the average national level.

Key Words : Ulleung-gun, Labor Market Structure, Local Labor Market Area, Employment Rate

논문접수일 : 2017.05.08
심사완료일 : 2017.05.30
게재확정일 : 2017.06.20